



강진원 강진군수가 김승남 국회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원 강진군수 국비 확보 '잔결음'

강진원 강진군수가 현안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다. 강 군수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김승남 국회의원과 면담하고 현안 사업 5건에 대한 국비 반영과 공모사업 협조를 요청했다.

강 군수는 현안 사업으로 ▲국도23호선 강진-마량간 4차선 확·포장 ▲전남 중남부권 철도 건설 ▲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사업 ▲월남지구 다목적 용존용수 개발 사업 ▲화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을 건의했다.

공모사업으로 ▲숙마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

강진만 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국비 300억원)은 요트, 카약, 보트, 수상스키 등 해양레저와 갯벌 체험, 해양조망형 캠핑장, 강진만 둘레길을 통해 바다, 생태, 남도맛, 관광, 스포츠가 결합한 융복합형 관광사업이다.

또한 월남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수변공원 조성(국비 688억원)은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월남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국비 160억원)과 연계해 자연경관이 빼어난 월출산, 무위사, 강진다원, 백운동 정원과 어우러지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산촌 생태문화 자원을 활용한 농업 소득 기반 마련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 밖에 공모사업 중 하나인 '농식품 바우처' 사업(국비 5억원, 군비 5억원)

은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에 월 4만원씩 농식품 구입비를 지급해 농협하나로마트나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국내산 과일, 채소, 계란, 잡곡과 같은 농산물 구입이 가능한 정책이다. 저소득층의 식생활과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김의원과 강 군수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진원 군수는 "재정이 열악한 강진군의 경우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국·도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로 국회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도청 등을 지속 방문해 건의하겠다"며 "예산 확보를 통해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누구든 만나고 어디든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 건축재정 기조에 따라 지자체 현안 사업 국비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강 군수는 지난달 취임 열흘 만에 김영록 지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지난 11일에는 도교육청을 방문하는 등 민선 8기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강진=정영록기자

국회 찾아 김승남 의원 면담 5건 지원 요청

강진-마량 4차선 확·포장, 공모사업 등 건의

강진만 패류갑소 피해보상 용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승남 의원은 "강진군의 건의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지역적 특수성에 대해 공감하고 다양한 지역 현안 해결을 통해 민선 8기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국도 23호선 강진-마량간 4차선 확·포장 공사(국비 1천500억원)는 강진군민의 숙원 사업으로 마량-고급간, 고급-신지간 연륙·연도 도로 개통 후 교통량·물동량 급증에 따라 4차선 확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강 군수는 국도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변경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 중남부권 철도 건설(국비 1조9천억원)은 나주역에서 영암-강진-완도로 이동하는 철도가 없어 이동 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주민·관광객 불편 해소가 시급한 사업으로 전남 중남부권 철도 건설이 국가철도망 변경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타당성을 설명했다.

'해남사랑상품권'



카드형 확대 발행

광주은행·새마을금고·신협서도 발급 가능

8월부터 해남사랑카드가 추가 발행된다. 해남사랑카드는 기존에 NH농협카드로만 발급됐으나 지난 10일부터 농협외 3곳의 카드사인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 방법은 기존 농협카드를 발급받을 때와 동일하다. 우선 카드 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은행의 계좌가 있어

야 하며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 카드를 발급받거나 지역상품권 앱(chak)을 통해서 발급받는 2개 방식이 있다.

2021년 1월 발행을 시작한 해남사랑카드는 6천여명의 가입자가 카드를 발급해 사용하고 있다. 상품권 판매 금액도 1천600억원에 달하고 있어 고객들의 편의 확대를 고려해 이번에 확대 발행하

게 됐다. BC카드 계열인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카드가 발행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보다 넓어졌다.

소비자는 각 카드사마다 카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카드 보유·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는 여러 카드를 보유하더라도 개인당 적용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사랑카드가 확대 발행됨에 따라 카드상품권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소비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카드상품권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4월 170억원 규모로 발행을 시작한 해남사랑상품권은 만 3년 만에 총 3천924억원을 발행, 3천660억원 판매를 기록하며 전국 군 단위 최대 규모 지역상품권으로 성장했다. 올해도 현재까지 1천174억원을 발행, 1천515억원의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해남=박필용기자



강진농촌활성화센터, 천연염색 기술 보급 강진농촌활성화센터가 지역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중 하나로 천연염색 교육을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는 5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다산초당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천연염색 심화반을 운영하고 최근 교육생 20여명에 대한 수료식을 가졌다. 천연염색 교육은 주부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채취해 일상생활에 쓰이는 각종 천을 염색하고 다양한 색을 만들어 내는 실습 과정이다. 한국천연염색공예협회 회원이자 전남협회장인 산애들에 대표 김영희씨가 강사로 나섰다. <강진군 제공>

귀농·귀촌 체류형지원센터 개소

해남군, 체계적 영농 교육·농촌생활 체험 제공

해남군에 체류하며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는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가 개소했다.

해남군은 계곡면 귀농·귀촌 희망센터 내에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최근 개소식을 가졌다.

체류형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을 꿈꾸

는 도시민들에게 체계적인 영농 교육과 농촌생활 체험을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정착을 결심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교육센터다.

단독주택 12동의 주거공간과 영농체험장, 공작업장, 강의실 등을 갖추고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영농 교육과

함께 다양한 지역 체험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군은 기존 귀농·귀촌희망센터의 분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체력단련실과 도서실, 동아리방 등 편의시설도 확충했다.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된 12명의 예비 귀농·귀촌인들은 앞으로 6개월 간 체류형지원센터에 거주하게 된다.

개소식에는 명현관 군수를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해남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입주자들을 축하했다. /해남=박필용기자

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 열린다

27일 해남 우슬체육관서 개최

전남 어린이들이 온 가족과 함께 하는 어린이 생활체육대축전이 오는 27일 16개 시·군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열린다.

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은 유년시절부터 스포츠 활동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가족이 함께 하며 즐기는 체육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쟁 중심의 체육활동과는 차별화된 참여형 체육행사로 진행된다.

경기 종목은 시·군별 생활체육 경연회를 시작으로 림보, 단체줄넘기, 깃발레이스 등 생활체육 6개 종목을 비롯해 서포보드, 스포츠스태킹, 페이스페인팅, 원터타, 풍선아트 등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도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개회식에서는 에어샷 세리머니와 종이비행기날리기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발문쇼(비눗방울 공연)와 태권도 시범단 공연, 마술쇼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식전행사와 축하공연으로 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박필용기자

강진 '연잎전병과자' 온가족 건강간식 인기

사시사철 온화한 기후와 깨끗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강진산 연으로 만든 '연잎전병과자'(사진가 추석 명절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강진군은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건강에 좋은 농산물을 '강진 건강 10대 농식품'으로 선정, 명품 소득 작목으로 육성·상품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품목이 연으로 재배기술 보급·교육, 유통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강진군 성전면에서 농업회사법인 ㈜

느린건조를 운영하고 있는 서형호 대표는 연을 이용한 연잎전병과자를 선보이고 있다. 무농약 쌀과 무농약 연 등 믿고 먹을 수 있는 재료로 생산해 연꽃의 은은한 향기와 자연의 맛을 그대로 담은 제품이다.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 간식이다. 또 두께가 얇아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며 부담없는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물 속의 불로초'라고도 불리는 연은 겨울 제철 식재료로 다양한 음식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피로 회복·기침·불면증에도 효과가 탁월해 예부터 귀중한 약재로 사용돼왔다. 특히 비타민C 함유량은 연근 100g 당 57mg으로 레몬 1개 함유량인 70mg과 맞먹는 정도다. 빈혈,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들에게 안성맞춤이다. /강진=정영록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정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훈훈한 정이있는
광양5일시장, 옥곡5일시장,
진상5일시장

● 장이 서는 날 ●

광양5일시장 - 매월 1일, 6일로 끝나는 날
옥곡5일시장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진상5일시장 - 매월 3일, 8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양시 Gwangyang

문의 : 062)650-2099